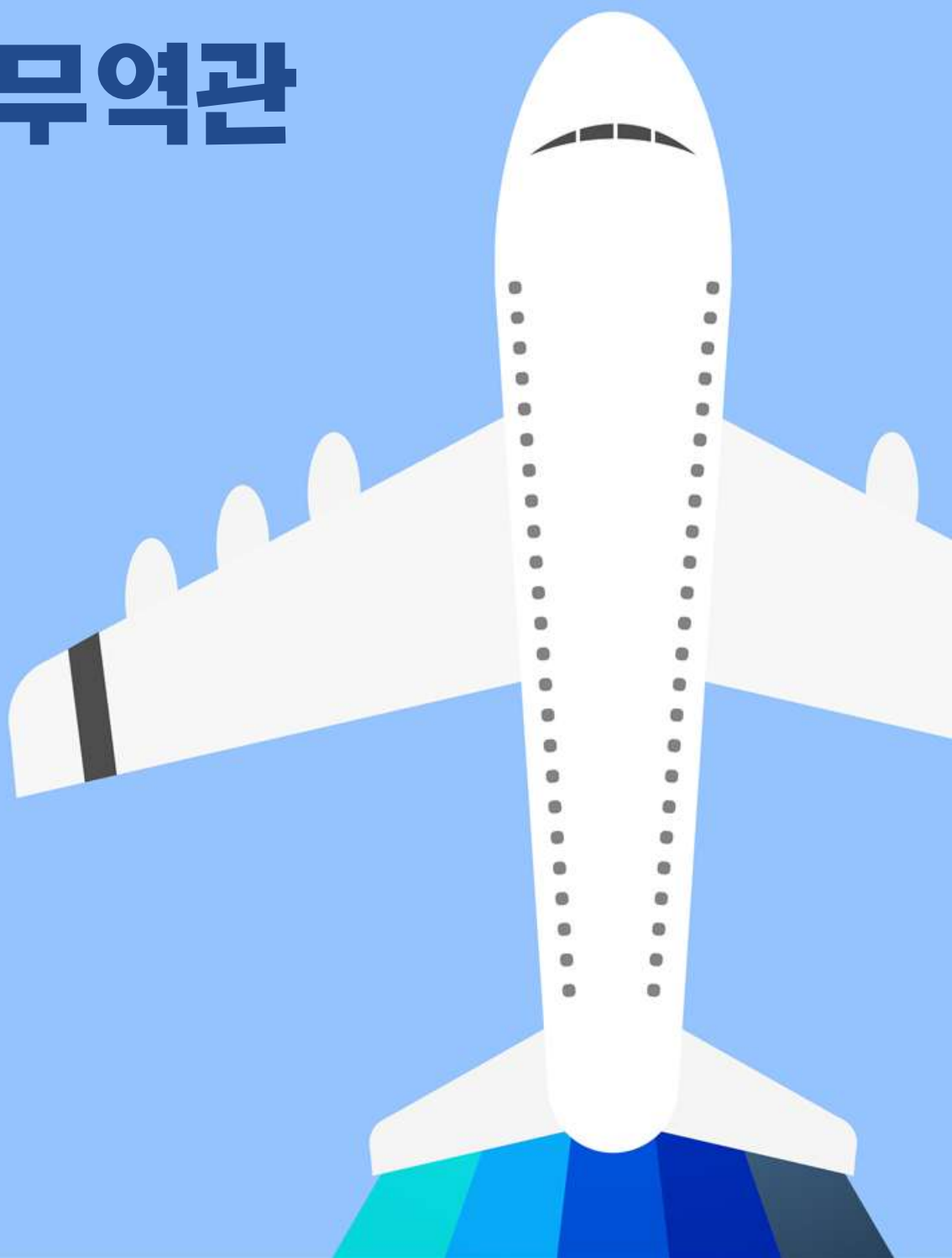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아제르바이잔

바쿠 무역관

Baku KBC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아제르바이잔 개황	1
II. 한-아제르바이잔 경제 관계	5
III. 아제르바이잔 시장 특성	9
IV. 출장 참고자료	14
V. 무역관 및 현지 유관기관	17
VI. 주요 관광지 개요	19

I. 아제르바이잔 개황

1. 개황

국 명	아제르바이잔 공화국(The Republic of Azerbaijan)		
위 치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러시아남부,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란, 터키와 접경)		
총면적	86,600km ² (한반도의 40%, 대한민국의 87%)		
인 구	10,164,500명('22년 3월 기준)		
민 족	아제르바이잔인(91%), 레즈기인(2%), 러시아인(1.3%), 기타 2.4%		
수 도	바쿠(Baku) / 약 230만 명 * 실제로는 400만 명 거주 추산		
언 어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어)		
종 교	이슬람교 96%(시아 85%, 수니 15%), 러시아 정교 2.5% 등		
정치체제	대통령제 [일함 알리에프 (2003~2025년) / '18년 4월 4선 집권] * 부친 헤이다르 알리에프 前대통령('96-'03년)		
의 회	단원제 (125석, 임기 5년)	통화단위	Manat(AZN) / 마나트 (1달러 = 1.7마나트)
총 GDP	929억 달러 (546.47억AZN/'21년)	1인당GDP (2021년)	AZN9,269.3 (USD 5,452.5)
경제 성장률	3.9% ('22년 정부 전망) -4.3%('20년), 5.6%('21년)	물가상승률	2.8%('20년), 6.7%('21년)
총교역액	339억 달러('21년)	수출/수입	222억 달러/117억 달러
주요 수출품	원유 및 천연가스 (총수출의 84%), 금, 농산물 등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

2. 아제르바이잔 정치·경제동향

□ 정치 동향

○ 알리에프 가문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 아제르바이잔의 국부(國父)로 여겨지는 ‘헤이다르 알리에프’ 대통령의 집권 (1993~2003년) 이후, 선거를 통해 장남인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이 2003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2018년 4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4선 당선**
- 혼란기 극복, 경제발전을 일군 ‘알리에프’ 가문에 대한 장년층의 지지와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치안 상황을 구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큰 정치적 변동은 없을 거라는 것이 현지 중론임**
 - * 경찰력이 강하며 야당이 존재하나 강력한 야권 인사가 부재함
- 2020.9.27.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대규모 무력 충돌** 발생, 러시아 중재로 2021.11.10. 정전 합의
 - * 정전 합의 사항은 아제르바이잔이 피점령지역 7곳을 탈환 및 반환받고, 양국 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해당 지역에 5년간 파병 (추후 어느 한쪽도 반대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연장)
- 30여년 만의 영토 수복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강해진 상황임

□ 경제 동향

○ (2006~2010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고성장을 구가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 산업이 총수출의 약 90%, GDP의 6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자원 의존 국가로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고유가와 ACG유전, 샤흐 데니즈 제1 가스전의 본격 가동으로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16.4%의 **고공 행진**을 구가함

○ (2015~2019년) 저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 노력

- 2015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의 영향으로 석유·가스 수출액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감소, 재정 악화, 환율 악화로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 -3.8%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았으며 2017년에도 0.1% 성장이라는 침체기를 겪음
 - * '15년 2차례 평가절하로 '14년 환율(\$=0.78) 대비, 118% 가치 하락('18년 1\$=1.7)

-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를 보여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유가 상승, 샤흐데니즈 제2가스전 가동의 영향으로 2.2% 성장세 기록

* 對달러 환율은 '18년 가치 하락 후 '21.6월 현재 1\$=1.7마나트 유지 중

- (2020~2022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고유가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폐쇄 등 특별검역체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 성장률 기록
 - 2022년은 고유가, 코로나19 안정 등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예상
- * 주요기관의 2022년 GDP 전망 : IMF 2.3%, ADB 3.7%, EIU 3.9%
- ** 현지 정부는 예산책정을 위한 배럴당 유가로 \$50을 상정하여 입안

□ 경제 정책 동향

- (석유·가스) 2020년 10월 남부가스회랑* 완공으로 對유럽 수출 확대
 - 남부가스회랑 사업의 완공 이후, 60억m³는 터키로 100억m³는 유럽으로 수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경제 반등 기대
 - * 총길이 3,500km로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그리스-알바니아-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통해 안정적인 對유럽 수출로 확보
- (비 에너지 부문)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현지 정부는 석유·가스 산업 의존 경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석유 분야(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으로 제조업 전반에 대한 성장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한 석유화학, 농업과 수입 수요가 큰 제약(의약),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 석유화학 다운스트림화 관련 삼성엔지니어링이 SOCAR 비료공장 건설('19년)
 - ** 농업 수출자원화를 위해 기금 조성, 농업장비관세면제, 농촌지원사업(ABAD) 등 추진
- (프로젝트) 카라바흐 수복지구의 전력, 도로, 주택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
 - 아제르바이잔 기존 지역 이외에도 수복지역에 대한 SOC 기반 구축 예산 반영
 - 현재 한국업체가 M1(바쿠-러시아 국경) 고속도로 요금수납시스템 설치 등 프로젝트 진행 중

□ 대외 교역 동향(주요 수입국)

- 아제르바이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아제르바이잔의 총 대외 교역액은 약 339.1억 달러로 2020년의 244.7억 달러 대비 27.84%가 증가함
 - 2021년 총교역액 중 아제르바이잔의 수출은 222.06억 달러, 수입은 117.05억 달러를 기록해 105.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21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
 -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주요 상품은 곡물, 설탕, 식용유 등의 식품과 소비재이며 터키로부터는 기계류, 가전제품, 소비재, 의약품 등을 망라하고 있음

< 2020~2021년 아제르바이잔 수입 동향 >

(단위 : 천 달러, %)

No	국가명	2020년		2021년	
			비중		비중
	합계			합계	
1	Russia	1,962,155.7	18.29	2,074,311.8	17.72
2	Turkey	1,563,048.0	14.57	1,843,709.3	15.75
3	China	1,413,824.5	13.18	1,639,492.6	14.01
4	Germany	583,473.6	5.44	634,395.8	5.42
5	Ukraine	418,455.1	3.90	470,024.2	4.02
6	USA	635,917.0	5.93	442,411.4	3.78
7	Italy	396,214.2	3.69	419,657.0	3.59
8	Iran	300,615.4	2.80	397,523.5	3.40
9	UK	296,972.1	2.77	271,197.3	2.32
10	Japan	195,111.7	1.82	259,021.8	2.21
-	한국	178,579.7(12위)	1.66	227,573.6(11위)	1.94

자료 :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 중국, 유럽(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의 수입도 많음
 - 수입국 3위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는 저가 소비재, 타이어 등을 수입
 -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에서는 기계류, 의약품, 의류·화장품 등을 수입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28억 달러를 기록해 총수입의 1.94%를 차지*
 - *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무역통계상의 수출액과는 상이
 - 한국에서 수출 시 주로 조지아 포티항에서 바쿠로 내륙 운송을 하므로 조지아 수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임

II.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관계

1. 교역동향

□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교역과 수출은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었는데 2013년까지 지속적 증가와 그 이후 유가에 따른 하락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음
- 2018년에 들어 유가 안정과 신규 가스전 개발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2019년까지 수출액이 증가세로 전환
 - 2018년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6,820만 달러 27.9% 증가, 2019년 8,030만 달러 17.8% 증가를 기록
- 2020년은 코로나19 및 아르메니아와의 무력 충돌 등 악재로 인해 7,187만 달러 -10.5%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1억 달러를 넘는 수출을 기록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점진적인 경제활동 완화 조치 효과가 21년 2분기부터 가시화되었고 유가도 상승하였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역액	54.1(-54.3)	69.8(28.8)	81.6(14.5)	74.8(-8.3)	109.617(46.5)
對 수출	53.3(-54.9)	68.2(27.9)	80.3(17.8)	71.9(-10.5)	108.117(50.4)
對 수입	0.8(163.0)	1.6(84.2)	1.3(-19.5)	2.9(123.3)	1.5(-48.2)
무역수지	52.4	66.5	79.0	69.0	106.62

자료 : KITA, 주 : () 안은 증감률

-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입 규모는 미미하며, 대부분이 수출했던 제품의 고장 등으로 한국으로 반품한 제품이 통계에 집계된 것임
 - 한국은 CIS 국가로부터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를 수입하나 아제르바이잔은 지리적으로 멀어 원자재 수입이 거의 없음

□ 對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

- 對 아제르바이잔 최대 수출품은 승용차로 2021년 누계 수출액 기준 총,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기 회복 및 약 3년 동안 불변하고 있는 환율로 인해 승용차 등 자산성 품목에 대한 소비심리 회복세를 보임
 - 그러나, 최근 현지 바이어들이 물류 운송비 증가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악재임
 - 운반하역기계,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의약용기기 등은 아직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플러스 수출 증가에 기여
- ※ 전자제품의 수출도 상당하나 제3국을 경유해 수출되거나 타국 생산 우리기업 제품이 많아서 한국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 통계에는 미반영

< 對아제르바이잔 수출 상위 20대 품목 >

순번	품 목	2020년			2021년		
		금액(천\$)	증감률(%)	비중(%)	금액(천\$)	증감률(%)	비중(%)
	총계	71,871	-10.5	-	108,117	50.4	-
1	승용차	17,082	-1.0	23.77	56,110	228.5	51.90
2	합성수지	2,897	464.2	4.03	8,590	196.5	15.31
3	자동차부품	5,269	-13.9	7.33	6,875	30.5	12.25
4	화물자동차	4,104	61.7	5.71	5,440	32.5	9.70
5	건설중장비	3,270	88.2	4.55	4,457	36.3	7.94
6	운반하역기계	4,153	-2.1	5.78	3,039	-26.8	5.42
7	의료용기기	1,810	-11.1	2.52	2,769	53.0	4.93
8	화장품	1,057	-27.8	1.47	2,599	145.9	4.63
9	타이어	1,311	-37.0	1.82	2,550	94.5	4.54
10	연선및와이어로프	1	79.8	0.00	1,683	209,779.8	3.00
11	의약품	2,065	33.5	2.87	1,627	-21.2	2.90
12	의료용전자기기	1,084	-6.3	1.51	1,363	25.7	2.43
13	펌프	313	-91.8	0.44	1,240	296.3	2.21
14	컴퓨터	22	-77.6	0.03	813	3,626.9	1.45
15	전동기	14	75.8	0.02	624	4,315.1	1.11
16	기타조명기기	85	238.2	0.12	609	619.6	1.09
17	전원장치	4	-48.6	0.01	605	13,559.6	1.08
18	X선및방사선기기	927	330.5	1.29	587	-36.6	1.05
19	기타의료위생용품	290	-35.0	0.40	563	93.7	1.00
20	윤활유	126	-84.6	0.18	511	305.9	0.91

자료 : KITA

2.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對아제르바이잔 투자진출

- '21년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투자는 총 5,348 천 달러를 기록해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비중은 매우 저조함
 - 이는 주변 주요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 규모와 러시아·터키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 등에서 기인
- 우리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양국 대통령이 교차 방문한 다음 해인 2008년으로 對아제르바이잔 총투자의(1997~2016년) 45%에 해당하는 239만 달러가 투자됨
 - 최근 우리기업의 투자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현지 지사 형태가 대부분이며 2016년 이후부터는 경제 위기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미미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투자 역시 부진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연도별 對아제르바이잔 투자 추이 >

(단위 : 건,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1997	1	5
2007	2	76
2008	5	2,393
2009	2	771
2010	0	87
2011	2	874
2012	1	38
2013	3	210
2014	3	213
2015	3	671
2016	0	11
총계(누적)	22	5,348

자료 : 수출입은행('21.6월)

- 우리기업의 주요 투자분야는 건설업으로 총투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9.3%, 농업·임업 5.6%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주요 업종별 對 아제르바이잔 투자 비중 >

(단위 : 건, 천 달러)

업 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비중(투자금액)
건설업	8	4,155	77.7
제조업	3	497	9.3
농업, 임업 및 어업	1	300	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58	3.0
기타	6	237	4.4

자료 : 수출입은행('21.6월)

□ 우리기업 7개 사 활동 중

- 삼성전자, LG전자 및 건설 관련 기업, KOICA 등 7개의 한국기업·기관이 현지에서 활동 중으로 대부분이 지점 형태로 운영 중
- * 지점은 마케팅 활동은 가능하나 세금, 회계 처리가 법인보다 쉬워 많은 기업이 선호

□ 아제르바이잔의 對 한국 인식

-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가전, 자동차, 화장품, 건설 분야 우리기업의 현지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
- 최근에는 K-방역 효과로 인해 의료기기, 의약품 분야에 대해 한국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황임

Ⅲ. 아제르바이잔 시장특성



< 일함 알리에브 대통령 내외 >



< 플레임 타워 >



< 바쿠 유전 >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적색표시) >



< 전통공연 모습 >



< 바쿠-조지아-터키 송유/가스관 >

1. 시장 잠재력

□ 풍부한 원유개발 잠재력

- BP 등 석유 메이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매장량을 약 70억 배럴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

□ 낙후된 인프라 확충 절실

- 전력, 상하수도, 철도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어 인프라 분야 진출 잠재력이 풍부

□ 제조업 기반 취약에 따른 수출 틈새시장 형성

- 일반 공산품 생산, 식품 가공 등 기초 제조업 분야가 취약해 향후 현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에 따라 자본재 수입 증가 전망

2. 시장 특성

□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

- 산유국으로 석유·가스 산업이 총 수출의 약 90%, GDP의 65%를 차지
- 이로 인해 유가에 따라 경제가 부침을 겪는 전형적인 자원 의존 경제 구조

□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시장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소비재를 터키,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산업재(기계장비)는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
- 농업, 식품, 설탕, 시멘트 분야에 제조업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취약함

□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시장

- 상위 5%가 국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로 대다수 일반 국민은 구매력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
- 이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향이 큼

□ 공급자 중심 시장 구조

- 높은 관세 장벽, 열악한 금융 및 물류 환경으로 유통비용이 높음
- 이로 인해 수입(구매), 통관 능력이 있고 대외거래에 능한 수입딜러가 소비자보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
 - 금융시스템 낙후로 무역 거래 시 신용장보다는 T/T송금이 일반적이며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때도 있음

□ 정부 유착 기업 중심의 경제활동

- 정부 고위관료가 관여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수주 시 해당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
 - * 고위 공직자가 간접적으로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를 암묵적으로 용인함
- 다른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고위 관료와 커넥션이 있는 경우 영업 활동, 세금 및 통관 등이 수월함

□ 인근국가에 비해 비즈니스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은 낮음

- 구소련 시대의 영향과 현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으로 이란 등 인근 중동국과 달리 종교(이슬람교)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 기도시간 등 종교적 이유로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3. 상관습

□ 거래 특성

- 아제르바이잔 기업인들은 자국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거래 독점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제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
- 비즈니스 상담 시 가격부터 먼저 물어보는 일도 종종 목격되며, 더 낮은 가격을 받기 위해 무역업체보다는 제조업체와의 직거래하기를 선호
 - *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중개상들이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가격 민감성에 영향을 끼침
- 아제르바이잔에는 L/C 거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T/T 거래 비중이 높음*. 또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관세 경감을 목적으로 실제 공급 금액 보다 적게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함
 - * 현지 은행들의 신용도가 낮아 L/C 거래보다는 T/T 거래가 선호됨

- **Agent 문화**가 있어, 작은 것 하나까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구입하는 문화가 일반적임. 또한 중간 소개자(Agent)가 일부의 이익을 챙기는 것 역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 외부에서 온 손님을 잘 대접하지만, **금전 면에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특성을 보유**
- 독점체제 및 부정부패 존재가 존재함. 경제구조가 일부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의 사적 경제활동이 실제로 받아들여짐
 - 공공부문 입찰에 있어서는 고위 공직자와의 관계없이는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현지 관계자의 조언임

□ 초기 거래 요령

-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대체로 계약 이행이나 약속 준수 개념이 철저하지 않고 과장이 심한 편으로, **최초 거래에서 외상을 준다든지 바이어의 말만 믿고 독점권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일은 신중해야 함**
- 체면을 중시하고 권위 의식이 높아서 무시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므로 다소 허황된 제안을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며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
-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상술에 능하며 협상 시 서두르지 않음. 이에 **가격 협상 시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융통성과 참을성을 갖고 대응해야 함**
 - 상담을 마친 후 여러 번 연락해도 회신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현지 파트너가 거래에 관심이 없어서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예도 있지만 느긋한 성격과 느린 업무 처리로 여러 번 독촉해야 겨우 회신하는 때도 흔함
 - 현지 의사결정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Top-down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부재중이면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임

- 한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함. 예를 들어 원단의 경우, 디자인과 색상을 일부 바꾸어 달라든지 하는 식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함

□ 대응 자세

- 아제르바이잔과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의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함
 - 통상 한국 사람들은 시간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스스로 포기하거나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느긋한 현지 문화 고려 시 서두르면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협의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Top-Down방식 탓에 비교적 사소한 의사결정도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업무가 진행됨
 - 협상이 차질을 빚을 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임
- 아제르바이잔 바이어는 비교적 한번 파트너(공급자)와 거래를 맺으면 쉽게 변경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바, 거래 초기에 수출액이 적고 여러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

IV. 출장 참고자료

1. 생활 정보

비 자	○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공항 도착비자를 발급 * 단,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은 비자 면제 ○ 변동사항 체크를 위해 대사관 또는 KOTRA 무역관에 문의 요망
기 후 (북 장)	○ 아제르바이잔은 온대성기후에서부터 건조 아열대기후, 산지툰드라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존재(9개의 기후존을 보유) ○ 수도 바쿠는 사계절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큰 편임
시 차	○ 한국보다 5시간 늦음 (예: 한국 오후 2시 → 현지 오전 9시)
전압 및 가전제품	○ 220v, 50Hz 사용 ○ 2구 소켓 사용 * 한국 가전제품 사용 가능
환 전	○ 현지은행, 시내 환전소 등에서 미화 환전이 가능 (U\$1=약 1.70 Manat, 2022. 4. 기준) ○ 호텔이나 고급 식당 등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현금 사용을 선호
교 통	○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갖추어져 있으며 요금도 저렴함 ○ 대부분의 택시는 탑승 시에 목적지를 설명하고 요금을 흥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최근에는 BOLT라는 앱을 통해 사전에 목적지 및 가격 확정 후 택시를 탈 수 있어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 (공항-시내 20~30마넛, 시내 인근 이동 3~5마넛 수준) ○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터키어·러시아어 가능)
전염병 및 예방접종	○ 예방접종 불필요 - 비상약품(감기약, 소화제 등) 사전 준비
치안상황	○ 치안상태가 양호하여 야간에 돌아다녀도 큰 문제가 없으나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의사소통문제로 곤란한 경우 발생 가능 ○ 또한 차량의 신호 미준수, 과속 등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적어 보행 시 차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팁	○ 일부 고급식당은 계산서에 5~10%의 팁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 식당의 경우 소액(1~3마넛)의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2. 현지 체류 시 유의사항

□ 아제르바이잔인 성격

- 아제르바이잔인은 체면을 중시하고 관혼상제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나 책임감과 시간관념은 다소 약한 편임. 참을성이 강하고 웬만해서는 큰 소리로 잘 다투지 않으며 연장자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음
-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한바,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언성을 높여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현지인 문화

- 이슬람 국가지만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여성들도 거의 히잡(헤드 스카프)을 착용하지 않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문화인 바 과도한 노출이 있는 복장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남성의 경우도 반바지,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야 함
- 현지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므로 무시하는 태도는 삼가야 하며, 첫 대면 시 ‘살람 말레이쿰(안녕하세요)’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좋음

□ 여행안전

- 탄탄한 경찰력을 보유해 치안은 양호한 편이나 야간에는 시내의 거리나 골목이 어두우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음
- 과속, 역주행, 후진 주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자주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편임에 주의해야 함

☐ 음료수

- 수돗물의 경우 석회질이 많아 생수를 구입해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

☐ 쇼핑

- 현지 생산 제품인 경우 품질 수준이 낮은 편이나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국 으로부터 대부분 제품이 유통 중임
- 현지에서 부담 없이 구입할 선물용품은 실크 제품(스카프, 카펫 등), 소형 그림, 차(tea), 철갑상어알 정도임

☐ 인터넷

- 대다수의 호텔, 음식점에는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직원에게 문의하면 사용이 가능 (현지는 유선보다는 무선인터넷이 보편적임)

☐ 국제전화 사용 방법

- 아제르바이잔 → 한국

도 시	식별번호	국가번호(한국)	기 타
바쿠	+	82	- 지역번호에서 0 제외 - 휴대폰번호에서 0 제외

* 예시) 일반전화 : +82-2-3460-1111 / 휴대폰 : +82-10-123-4567

- 한국 → 아제르바이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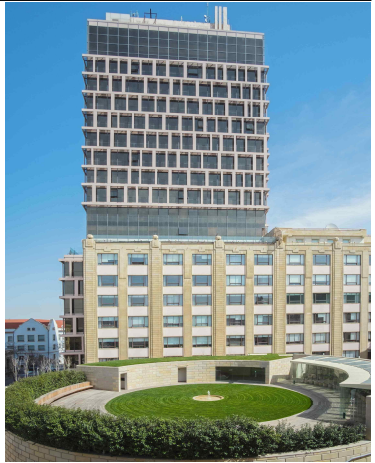
국 가	도 시	국가번호	기 타
아제르바이잔	바쿠	994	- 지역번호(바쿠) : (0)12 - 휴대폰번호 : (0)50, (0)51

* 예시) 일반전화(한국에서 바쿠 무역관(012-436-7560)으로 전화 시) 001 등 국제전화 코드 + 994-12-436-7560

V. 무역관 및 현지 유관기관 안내

1. 바쿠무역관 (www.kotra.or.kr/baku)

□ 무역관 개요

주 소	The "Landmark 2: tower, 2 nd floor, 45A Nizami str., Baku, Azerbaijan	
전 화	+994-12-436-7560~61	
팩 스	+994-12-436-7562	
공 항에서 무역관 오는 방법	· 공항 대기 택시이용(약 20~30마나트) · 공항버스(2.5마나트)를 이용해 시내 도착 후 택시 이용(약 5~7마나트)	

□ 직원 안내

성명	업무	휴대 폰	이 메 일
조계권 관장	업무 총괄	+994-51-415-6645	iambreathingnow@kotra.or.kr
Ms. Vusala	조사, 프로젝트	+994-50-277-6606	ya@kotra.az
Ms. Sabina	지사화, 화상상담	+994-55-375-5009	marketing@kotra.az
Ms. Arzu	전시회, 화상상담	+994-55-266-1635	marketing2@kotra.az

2. 유관기관

○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H.Aliyev str., Cross 1, House 12, Baku, Republic of Azerbaijan
- * 유럽호텔(Europe Hotel)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인접해 있음
- 전화 : +994-12-596-7901~7903
- 이메일 : azeremb@mofa.go.kr
- 휴일 및 근무 외 시간 비상전화 : +994-51-877-9607 (당직)

○ 주조지아 대한민국대사관 트빌리시 분관

- 주소 : I. Chavchavadze Avenue, 1st Lane #8, Vake, Tbilisi 0179, Georgia (Nugzar Sajia Street 8, Vake, Tbilisi, Georgia)
- 전화 : +995-32-297-0320
- 이메일 : georgia@mofa.go.kr
- 휴일 및 근무외 시간 비상전화 : +995-599-094-746 (당직)

○ 주아제르바이잔 한인회

- 전화 : +994-12-502-6320
- 홈페이지 : <http://azerbaijan.korean.net>

○ 주아제르바이잔 KOICA 사무소

- 주소 : Chirag Plaza (4th floor), 49/C Tbilisi avenue, Baku
- 전화 : +994-12-499-7214~6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oica.azerbaijan>

○ 현지 한인여행사 (바라기)

- 전화 : +994-51-386-8255
- 이메일 : cndtjr79@gmail.com

○ 현지 주요 연락처

- 응급전화 : 화재 101, 경찰 102, 긴급의료지원 103, 사설 긴급의료센터 : 497-0911
- 주요 병원
 - * SEBA- Oriental Hospital of Azerbaijan(한국인 한의사 근무)
+994-12-437-1825, 1810, (65 Neftchilar avenue, Baku)
 - * International SOS Baku (24시간 진료가능, 주재국 병원에 대한 정보 제공)
+994-12-489-5471 (Yusif Safarov str., 1, Khatai district, Baku)
 - * Bona Dea International Hospital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994-50-251-9901 (Mehdi Abbasov 2st, Baku)

VI. 무역관 및 현지 유관기관 안내

□ 알리에프 國父 묘소(Alley of Honor)

- 현 알리에프 대통령의 부친이자 아제르바이잔의 國父로 추앙받는 헤이다르 알리에프 前 대통령 묘소
- 카스피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국립순교자 묘지와 인접
- 일반인 출입 제한 및 예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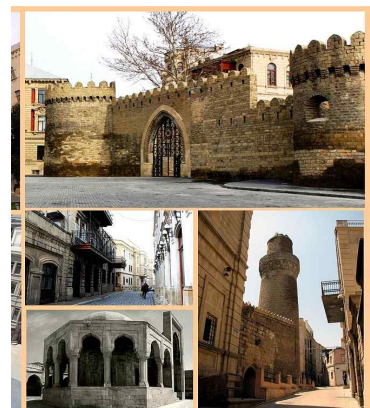
□ 국립 순교자 묘지(Martyrs' Alley)

- 아르메니아와의 1992~1994년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전쟁에서 사망한 4,000여 명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지
- 카스피해 조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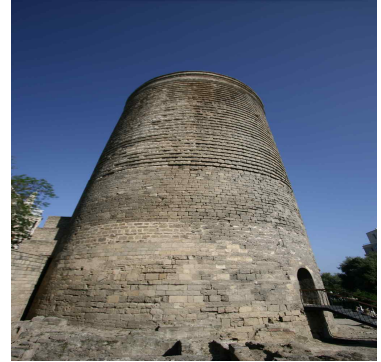
□ 중세도시-올드 시티(Icheri Sheher - Old City)

- 바쿠 대표 관광지로 성곽 내부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임
- 성곽 내부에는 처녀의 성(12세기), 쉬르반 궁전(15세기), 카라반 사라이, 모스크, 목욕탕 등이 보존되어 있음.



❑ 처녀의 성(Maiden's Tower)

- 올드시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10세기부터 약 2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탑으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의 의미가 있음
- 돌을 블록 형태로 쌓아 만들었으며 총 높이는 29.5m, 직경 16.5m이며, 벽두께는 5m



❑ 쉬르반 궁전(Shirvanshah's Palace)

- 15세기 쉬르반 샤호프 칸 왕족이 샤마키에서 바쿠로 수도를 천도할 때 건축
- 궁전 내부에 모자이크, 왕의 밀실 등이 위치
- 올드 시티 내에 위치



❑ 노벨 박물관 (Nobel Brothers Museum)

- 19세기 말 스웨덴의 노벨 가문의 형제들이 바쿠의 석유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동 박물관은 당시 노벨 형제들이 살았던 곳을 복원
- 당시의 북유럽식 건축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



❑ 세계 최초의 카펫박물관(Azerbaijan State Carpet Museum)

- 1967년 건립된 세계 최초의 카펫박물관
- 19세기 금속 예술품, 18~20세기의 카펫을 포함한 만여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



< 참고 사항 >

□ 아제르바이잔 위치



- 아르메니아(1,007km), 조지아(480km), 이란(765km), 러시아(390km), 터키(15km) 접경

□ 아제르바이잔 국기 및 국가문장



- 파란색(민족이 튀르크족에서 기원했음을 의미)
- 빨간색(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지향)
- 녹색(이슬람교 상징), 초승달(영원), 팔각별(세속)을 의미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